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

- 3. 28.(목)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 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였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명절·휴가철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및 제도 개선 워크숍 등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위촉되는 국민안전감독관 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여객과 여객선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안전감독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해사안전 감독관	장종휘 (044-200-5761)



□ 추진 경과

- (모집공고 / 지원자) '23.2.14.(수) ~ 3.1.(금) / 총 37명 지원
 - * 권역별 지원자 : 서해권 18명, 서남해권 10명, 동남해권 9명
- (1차 서류 전형) '23.3.7.(목)
 - * 지원동기, 경력 우대사항, 성별, 연령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 면접대상자 선정
면접대상자 : 서해권 10명, 서남해권 7명, 동남해권 8명
- (2차 휴대폰 영상통화 면접) '23.3.14.(목) / 해운물류국 회의실
 - * 후보자 25명을 면접, 지역별로 연령대·성별·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15명 최종 선발

□ 선발 결과(총 15명)

- 총 지원자 37명 중 지원동기,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1차)·면접(2차)을 통해 15명 최종 선발(男14, 女1)
 - * 30세에서 59세까지, VTS 관제사, 항해사 경력자,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등 다양한 연령층·직업군으로 구성

< 2024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결과 >

지역 \ 연령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소계	5	7	3	0	15
서해권	2	2	1	0	5
서남해권	1	4	0	0	5
동남해권	2	1	2	0	5